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화로신 주(찬50/새35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박관수 집사 2부/김건성 장로 3부/권조원 장로 4부/권앤디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아니면(작곡 조성은)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Yule Kim 김 울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부/행 1:4-8 2부/눅 14:25-35 ..... All together 다같이  
3부/막 7:31-37 4부/잠언 4:7-9
- 말씀 Message 1부..... 예수님의 유언.....Rev. JaeSeo Lee 이재서 목사  
2부..... 제자의 길.....Rev. SeungWon Jung 정승원 목사  
3부..... 열리라.....Rev. KwangChul Yu 유광철 목사  
4부..... 결혼 잘 합시다.....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굴곡의 인생

Life of Many Curve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저는 8-90대 성도님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보니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나라가 독립하는가 싶더니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밥 먹기도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지나셨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본 것처럼 독일 광부로 떠나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잘살아 보세' 노래를 부르며 새마을 운동을 하다가 셋방에서 연탄가스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조그만 개척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 똑똑 흘리며 새벽기도 하며 버거운 인생의 무게를 이기고, 이제 살 만한 때에 다시 낯선 이국땅에 이민 와서 말이 안 통하니, 한국 분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시간당 급료를 받으며 바느질하다가, 새벽 장에서 야채 과일 가게를 하다가, 아침 점심 장사하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세탁소 인수하여 겨우 시간을 내어 주말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힘겹게 키운 자녀들이 결혼하여 멀리 떠나가고 텅 빈 집에서 허전한 맘에 병을 얻어 매일 약 먹으며,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나이가 되어 버린 성도님들을 보면 그냥 가슴이 찡해집니다.

저같이 부모님 따라 미국 와서 부모님 희생의 언저리에서 밥걱정 없이 자라온 자녀 세대들은 가끔 자기가 잘나서 여기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높낮이를 연필로 선으로 그리려면, 굽직한 고난의 선이 선명한 부모님 세대는 오르락내리락 첩첩 산을 그릴 것 같고, 우리는 완만한 언덕 정도 그리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올랐던 굴곡의 산을 완만한 언덕만 걸었던 우리가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장애인 신학 강좌를 통해, 우리 주위에 이 모든 인생의 굴곡에 또 하나의 짐을 지고 가는 장애인 가족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굴곡이 많았던 인생을 걸어왔던 분들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 걸었던 자들은 늘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대로 살았지만, 고난의 산을 오르던 분들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날씨의 변화에도 적응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은혜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내가 평탄하게 걸어왔던 내 방법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 이번에 만난 지혜가 그 산을 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When I see church members in their 80s and 90s, I bow my head in respect. These are the people who endured some of the most difficult times. They were born when the country was lost. While they were seeking independence, 6.25 War(Korean War) broke out. They escaped through battle-torn hills with hardly any food. Like the movie [Ode to My Father], they became the ones to sacrifice for their wives and children by going to Germany as miners or participating in Vietnam War. They sang "Let's live well" and joined the New Town movement. Many experienced near deaths from carbon-monoxide in their tiny rental homes. On cold early mornings they would go to early morning prayer services at a small church where they knelt on wooden floors to pray tearfully, unloading their heavy burdens. When things began to look up, they immigrated to U.S. Unable to speak English, many worked earning hourly wages in garment factories ran by Koreans. Some ran grocery stores, getting their produce from early morning markets. They worked in kitchens of restaurants selling breakfast and lunch. They took over laundromats and, barely able to take off weekends to serve in their church. Their sons and daughters would get married and move far away. They now face empty house where they raised their kids. Suddenly they are taking many daily doses of medications for their illnesses, turning grey and aged. When I see these church members, my heart aches.

Children who came to U.S. with their parents, like me, often confuse their lack of worries over food and other things as blessings of their own doing when it's really from the sacrifices made by their parents. If we were to draw lines of life's highs and lows, our parent's generation would have the clear lines of suffering and mountainous up and down curves. Ours look more like gentle hills. I worry if we, who have walked only gentle hills, will be able to climb the mountains like our parent's generation.

From the Theological Conference on Disability this past weekend, I earnestly thought about families with disability around us and their burden of yet another life's curves. What is clear is that those who walked life of many curves gain wisdom to climb steep hills. Those who walked only flat roads live according to their own thoughts. Those who climbed mountains of sufferings know how to manage their speeds and understand how to adjust to changing weather. This wisdom is the evidence of God's grace. Through the conference, indirectly, we shared this grace. When we face the mountains that we cannot climb from our own by gentle walking, the wisdom we gained becomes our companion to climb the mountains.

주일 설교노트 / 나눔교재

- 1부: **예수님의 유언** (행 1:4-8) ..... 이재서 목사
- 2부: **제자의 길** (눅 14:25-35) ..... 정승원 목사
- 3부: **열리라** (막 7:31-37) ..... 유광철 목사

적용하기



신임 목회자 소개

# 김해나 전도사



### 1. 베델교회 BYM을 담당하게 된 소감을 나누어 주세요.

베델교회 다음세대 사역인 BYM을 섬기게 되어 기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몰라 기도와 씨름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베델교회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 2. 가족과 전공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신실하신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혼이며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영문학 전공으로 CSUF 대학을 졸업하고 성경적 카운슬링 전공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Westminster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 3. 예수님을 구주로 언제 영접하셨나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개인적인 영적 만남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평생 들어왔던 복음이 마음 깊이 와 닿았고 마치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반항심과 죄성으로 가득한 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에 필요한 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4. BYM에 대한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점점 하나님을 지워 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또 20년, 30년 후에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애들이 이렇게 다른 거지?' 라는 의문을 저절로 품게 만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가지며 주위 사람들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된 전도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은 봉사자들이 이 사역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교사들과 이미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협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 구원의 관점

박경철 목사님의 수요말씀 주제인 '구원의 관점'을 들으며 '관점'과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 믿으며, 현실 너머 천국을 볼 수 있는 '구원의 관점'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관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대비되는 '구원의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신앙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개개인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관점입니다. 매일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세

상의 관점에 빠져 불안과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주어진 현실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해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썩어지지 않을 씨, 믿음과 말씀을 심으셨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진 은사가 아닌 믿음을 통해 판단하십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통해 보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교회와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개인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값으로 사신 곳, 그래서 교회가 전부입니다. 어떤 것도 교회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란 잘못된 생각에 대해 가정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수요예배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 안에 불안함,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관점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의 천국을 현실에서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베델뉴스팀



선교-BAM

#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난 2022년 조지아 선교대회에서 BAM (Business As Mission)을 통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즉 선교사라는 특별한 명칭보다는 비즈니스를 도구로 선교지에 접근하면 더 많은 나라에 갈 수 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재능을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연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델교회는 지난 6월 초에 실크웨이브에서 주관하는 T 국의 K-컵밥집 오픈을 위해 재정, 홍보, 그리고 마케팅으로 여러 성도님이 연결되어 함께 섬겨주셔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BAMer's Night은 BAM을 수료한 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베델교회에 새로운 선교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IT, 건축, 회계, 의료, 가정 등의 분야별로 테이블을 배치하여 베델의 총체적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고, Mission & BAMer's Forum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이슬람 지역을 비롯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BAM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 김홍식 목사

BAM 1단계 훈련을 마치고 BAMer's Night 이 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삶과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려움과 은혜를 나누었던 팀원들과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훈련받으신 선배님들과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과 한자리에 모여 나눔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황지영 성도

BAMer's night을 통해 함께 BAM 훈련을 받은 여러 동역자분을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 계획 앞에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의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대웅 집사

BAM 훈련을 마치고 지속적인 교류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BAMer's Night을 통해 오랜만에 만나 다시 한번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과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를 상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스쿼드 멤버들의 고민과 새로운 발상들을 보며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BAM 훈련을 기대하며 저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길 기도합니다. - 박지학 집사

1단계 2단계를 연이어 훈련받으면서 성경에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BAMer로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익을 좇으며 내가 편한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짐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BAMer로서의 삶을 이루게 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종선 집사



제가 미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 등록금을 벌어서 송금하기 위해서였고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든 많은 시간을 일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AM을 등록하고 훈련받으면서 저의 버거운 삶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BAM을 수료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저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아바드, 즉 '일하다' 혹은 '섬기다'라는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자녀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도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AM을 시작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고 스쿼드톡방에 올리는 과제를 하면서 아내와 자녀가 함께 있는 토크방에도 동일하게 매일 아침 큐티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큐티 내용으로 가끔씩 한국어에 있는 아내와 유학 중인 자녀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곤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에 각각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서로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서로 보듬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남은 인생길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고 계시고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BAM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감사드리고 BAM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윤명용 성도



# 더 깊은 믿음으로

서로의 기도가 힘이 되는 저희 축복의 씨앗 2셀을 소개합니다. 우리 축복의 씨앗 2셀은 저와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며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처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기도의 지원군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없이 아이와 둘만 지내는 저를 항상 살뜰히 챙겨주는 진정한 이웃사촌이고 제가 믿고 따르는 리더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 집사님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셨고 교회에서는 모두 중요한 사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시는 인 권사님과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 집사님 가정, 도우미 권사님으로 열심히 섬기는 황 권사님 가정, 교회 출석과 동시에 봉사를 시작하신 남 집사님 가정, 언제나 집을 오픈해 주시고 살뜰히 챙겨 주시는 민 권사님과 셀목자인 최 집사님 가정까지 한 분 한 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제가 LA로 이사

를 한 이후에도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응답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태복음 18:19)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확신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대학 진학처럼 어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나 자녀의 믿음에 대한 기도를 서로 나누고 나아가 들면서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이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무거운 기도 제목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믿음도 함께 깊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날, 천국에서도 다시 뭉쳐 축복의 씨앗 2셀을 계속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영경 집사

## 내 신앙의 자서전

###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김병찬 장로



40년 전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새롭고 동네마다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있는 여유로운 자연 환경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답을 구하기 위해 기도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절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

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두드렸고 노력하니 주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였으며 응답받지 못할 것 같던 기도도 돌이켜보면 응답받은 기도였으며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찬양을 통해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었던 육신과 마음의 고통, 수치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롬 12:18)는 말씀을 새기며 지금껏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편에서 서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제가 가진 은사로 섬기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 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h)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영어양육/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제25기 아기학교 등록 안내



제25기 베델 아기학교가 드디어 2023년 8월 24일(목)에 개강합니다. 베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아기들의 눈높이에 맞춰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 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즐거운 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베델 아기학교를 통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간: 8월 24일-11월 16일  
매주 목요일 1회, 총 13주 과정
- ▶ 장소: 베델교회 할렐루야 채플, 유년부실
- ▶ 모집 대상: 생후 15개월-48개월
- ▶ 등록 기간: 7월 16일(주일)부터 선착순 접수  
\*인원 제한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인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서 별도의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 등록 방법: 베델교회 행정사무실,  
주일은 본당 앞 아기학교 부스
- ▶ 문의: 김경자 권사 (949)351-6123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강충이 반(15-48개월)**

- ▶ 모집 정원: 40명(선착순)
- ▶ 일정: 오전 10시-11시 30분 \*보호자 동반 필수
- ▶ 등록비: \$270

**돌돌이 반(30-48개월)**

- ▶ 모집 정원: 7명(선착순)
- ▶ 일정: 오전 11시 40분-오후 12시 40분  
\*프리스쿨 준비반. 보호자 없이 진행  
\*강충이반 등록 학생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 등록비: \$18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7/23: ①부-박성규	②부-김도석	③부-김근수	④부-채은진
	7/30: ①부-박재문	②부-김병인	③부-김문경	④부-김영재
	8/6: ①부-박영선	②부-허용진	③부-김태현	④부-최의영

헵시바 토요일 대표기도(7,8월)	7/22: 김정옥	7/29: 김종곤	8/5: 김진원	8/12: 김태운
--------------------	-----------	-----------	----------	-----------

강단꽃(7,8월)	7/16: 김창남, 정민주	7/23: 박은미, 서진하	7/30: 류재영, 이태형	8/6: 김종현, 현승원
-----------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과), 간호사-이정하      다음주 | 의사-김혜수(가정의학과), 간호사-김현욱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베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은혜 가운데 드러지는 베델 수요일예배는 정승락 목사님의 '은전한 삶으로의 여정 시즌 2 남은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드러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토요 새벽 헵시바 일천으로 Always Be There!**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 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6시, 본당

◆ **베델 기도학교 연합모임** 15주간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굴리기를 했던 그룹기도회의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헵시바 일천으로 뜨거워진 기도의 불이 거룩한 햇불이 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하며 기도학교 훈련생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7월 22일(토) 오전 7시 30분  
장소: 비전채플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아기학교 가을 학기 개강 안내** 올가을 학기 아기학교 등록이 7월 16일 (주일)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시작하며 40명 정원(선착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기간: 8월 24일-11월 16일(13주간) 매주 목요일  
등록 대상: 15-48개월  
문의: 김경자 권사 (949)351-6123,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주차 안내**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뒤편 영어 회중(BGC) 주차장과 중국 교회 쪽에 교회학교 자녀들을 Drop off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 **소망부 VBS** 7월 18일(화)부터 21일까지 소망부 VBS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Ignite'**  
기간: 8월 10(목)-12일(토)  
장소: 베델 갈릴리 수영장  
등록 방법/회비: CIM 단체 카톡방 구글 링크, \$120  
문의: 장세인 집사 (949)910-1670,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BYM 영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Overflow'**  
기간: 8월 7(월)-10일(목)  
장소: Forest Home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튀르키예 지진현장 구호 단기팀 모집** 국제적인 긴급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최: SWM 실크웨이브 / 프로젝트 명칭 CES)  
선교 기간: 9월 11일(월)-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교회에서 소정의 경비가 지원 됩니다.  
등록처: 본당 앞 코트야드, 교회 홈페이지 (7월 3째주까지 모집합니다)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선교 기금 모금** 예살 필라델피아 선교 기금 마련으로 오늘(16일) 코트야드에서 닭강정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기도해 주세요**  
예살 필라델피아 단기선교 파송기도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2일(토)-7월 29일(토)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16일) 3부 예배에 김영광/김세진 성도의 딸 김 울(Yule Kim)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원영애 권사님(박금옥 권사의 모친/박희원 집사의 장모)께서 7월 13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박재철 성도님(박선희 권사의 부친/김효선 집사의 장인)께서 7월 14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Sunday Worship Sermon Note

- 1<sup>st</sup>: **The will of Jesus** (Acts 1:4-8)..... Rev. JaeSeo Lee
- 2<sup>nd</sup>: **The way of disciple** (Luke 14:25-35) ..... Rev. SeungWon Jung
- 3<sup>rd</sup>: **Be opened!** (Matthew 7:31-37) ..... Rev. KwangChul Yu

Apply to Life

